**음성 가이드： 다이큐칸 지옥**

가장 많이 증기가 분출되는 곳에는 무서운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. 그 이름하여 다이큐칸 지옥입니다.

운젠은 일찍이 불교 성지의 중심지였으며, 이 지역의 이름에는 승려가 불교로부터 받은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. 이곳도 그 중 한 곳입니다. 전승되는 이야기 중 다이큐칸 지옥이란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게 되는 16개의 지옥 중 하나이며, 거짓말을 한 죄인이 떨어지는 곳으로 지옥의 귀신이 혀를 바늘로 찌르거나 뽑기도 한다고 합니다. 왜 다이큐칸 지옥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. 화산 분출구에서 뿜어져나오는 뜨거운 가스가 내는 소리는 특히 밤에는 더욱 더 땅 아래에서 나는 비명소리처럼 들립니다.

다이큐칸 지옥은 운젠 지옥 중에서 가장 활동이 활발한 곳입니다. 이곳 열탕은 특히 더 뜨겁고 산도가 강합니다. 하지만 옛날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. 가장 활발한 장소가 천천히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. 옛 하치만 지옥은 가스 분출이 멈췄고, 원래 지옥이었던 원생 늪은 아름다운 늪지로 변했습니다.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다이큐칸 지옥도 조용한 곳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.